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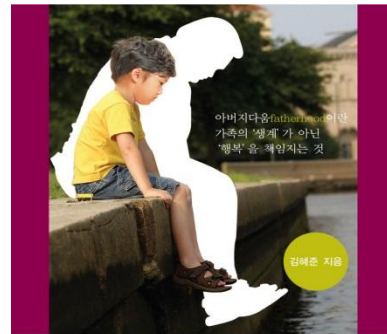
Family Value & Fathering

김혜준 (2016.11.25)



김 혜 준

- (사)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 부모교육전문가협의회 위원
- 월간 '행복뿌리' 발행인
- 청와대 행정관
-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 왜 지금 '아버지'인가?
- Fathering의 현주소
- 그 결과...
- 솔루션
- 활동 소개

왜

지금

‘아버지’인가 ?



Family Value







서울 15.2℃ ▶ 날씨 18면 고객센터: 1588-3000

joongang.co.kr

제15439호

2014 가족 빅뱅 - 새로운 가족이 온다

싱글 패밀리, 6년 뒤엔 대세



“+자녀” 전통 가족 종교
1인 열 집 중 네 집 싱글
주거·치안정책 대전환

37%로 가장 많고 1인 가구와 부부 가구가 각각 23.9%, 15.4%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6년 후인 2020년엔 1인 가구가 전체의 29.6%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다. 통계청은 “이들 근거로 새 정치민주연합 양심조 의원들이 국외 임명조처에 의뢰해 서울시에 대한 결과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열 집 가운데 네 집이 1인

가구라는 얘기가 되자 남녀가 사회 구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싱글 코리아’의 함의이다. 자녀 없는 부부 가구도 늘어난다. 2031년 부부 가구(22.1%)가 부부+자녀 가구(22%)를 처음으로 추월해 두 번째로 많은 가구 형태가 된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가족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지 취재팀은 18~19일 대학생 세대와 부모 세대

100명(20대, 60대 이상 50명씩)을 면접 조사했다. “부부+자녀 가족이 정상적인 규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60대 이상 중 94%가 동의한 반면 20대는 52%만 동의했다. 또 “독신자를 하나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세대의 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02년 한국가족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 5.1%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나 홀로 가족의 전면 등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절대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대 이명진 사회학과 교수는 “결혼 기회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1인 가구가 지배적인 가족 형태가 되는 건 가스를 뿜어내는 사회 현상”이라며 “부부+자녀 가족을 전제로 구축된 경제·복지·교육 등 정부 정책이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tonoo@joongang.co.kr

로族'

올해의 경우 24.1%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2030년이 되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은 38.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60세를 넘긴 부모가 더 이상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13년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 자녀와 따로 사는 사람 비중은 54.8%였다. 60세 이상 사람 비중도 2002년 49.3%에서 2013년 51.4%로 늘었다. 자녀에게 얹매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 중·장년층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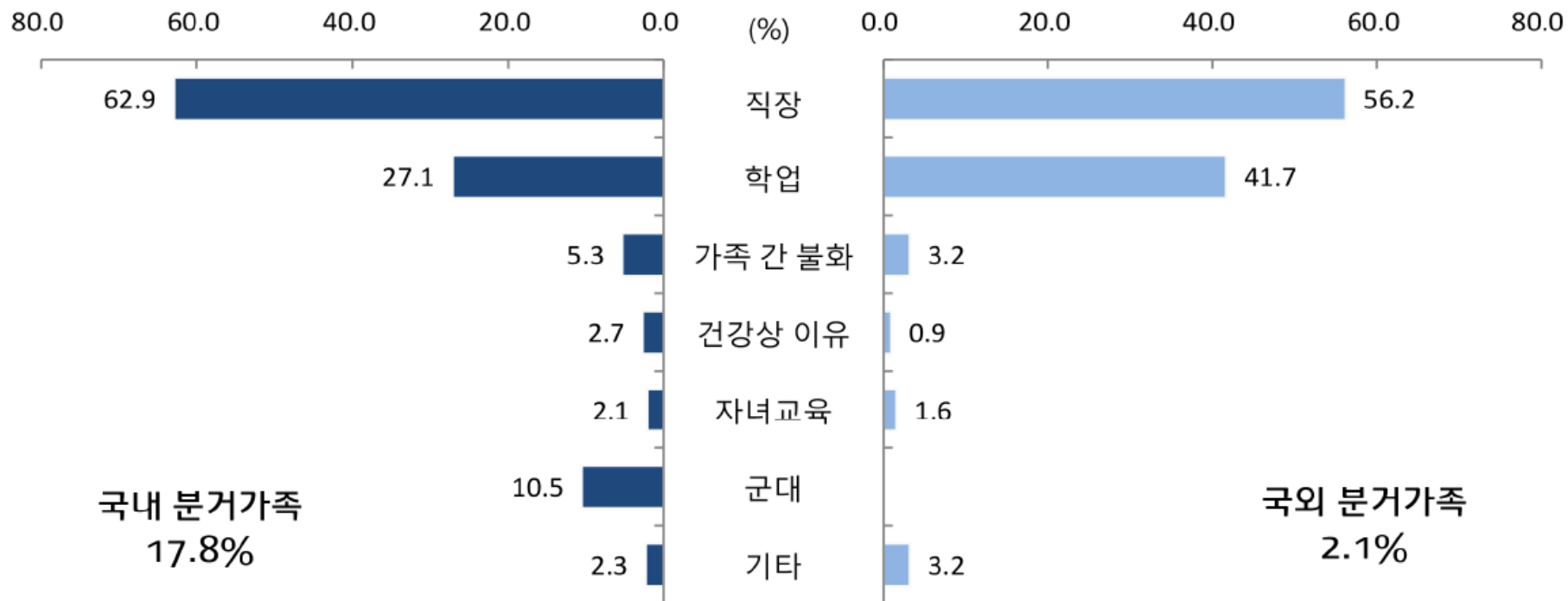
함께하는 아버지들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율(%)						평균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1
2005	15,887	20.0	22.2	20.9	27.0	7.7	2.3	2.9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2015	19,111	27.2	26.1	21.5	18.8	4.9	1.5	2.5



함께하는
아버지들

< 따로 살고 있는 이유 >



<표2>

* 만

100

90

80

70

60



이 : %

비율

0.0%

2.4

한국

년 기준

그는 보직급으로 전세 대출금을 갚고

이후에는 남자가 워드셔포를

테티-라매 말을 잊지 못했다. 이



함께하는
아버지들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압축 성장

물질만능 > 정신문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제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함께하는
아버지들

Fathering의 현주소

혼란 & 소외

박원국 | 극본 이숙진 | 방송 매주 월,금 밤 8시55분



함께하는
아버지들

四面良父歌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



(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현 황

▶ 취업모의 95.6%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미흡

* 기혼여성 취업여성의 사업체 분포('13, 통계청): 300인 미만 사업체(95.6%), 300인 이상 사업체(4.4%)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시급

〈유자녀 취업여성 (25~39세)의 일·가정양립 제도 수요-공급 일치도〉

(단위 : %, 명)

가장 이용을 희망하는 제도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69.5	46.9	16.9	17.6	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과 사업주의 대체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휴가휴직 사용이 저해되는 경향

* 사업장에서는 '인력부재(37.6%)', '대체인력 채용(31.3%)'을 육아휴직에 따른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음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14)

▶ 맞벌이 보편화에도 여성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문화적 개선 필요

*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시간 : 남 0.7시간 vs 여 3.3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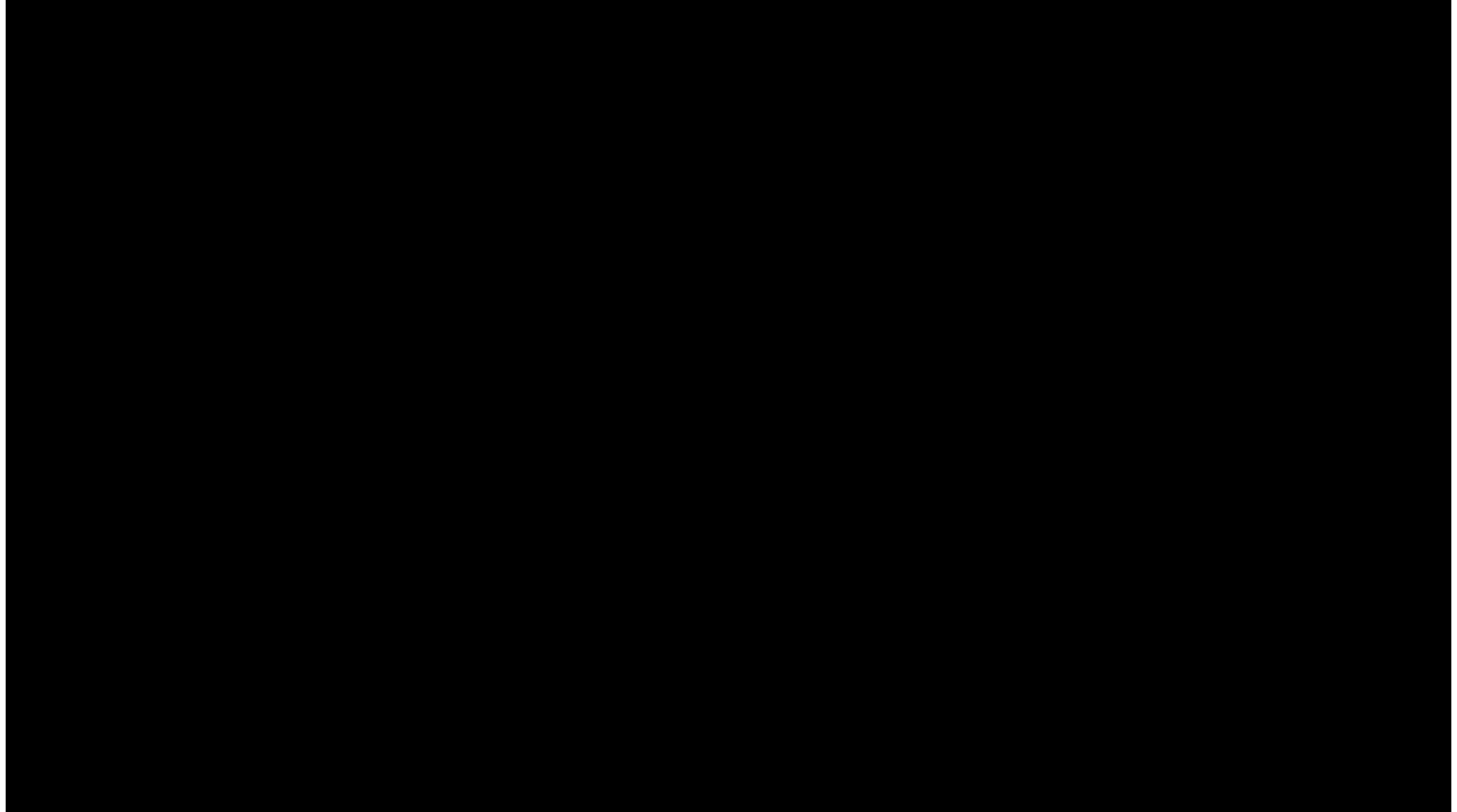
●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14.10)하였으나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로 사용자(부 또는 모)의 첫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상한액 100→150만원)까지 상향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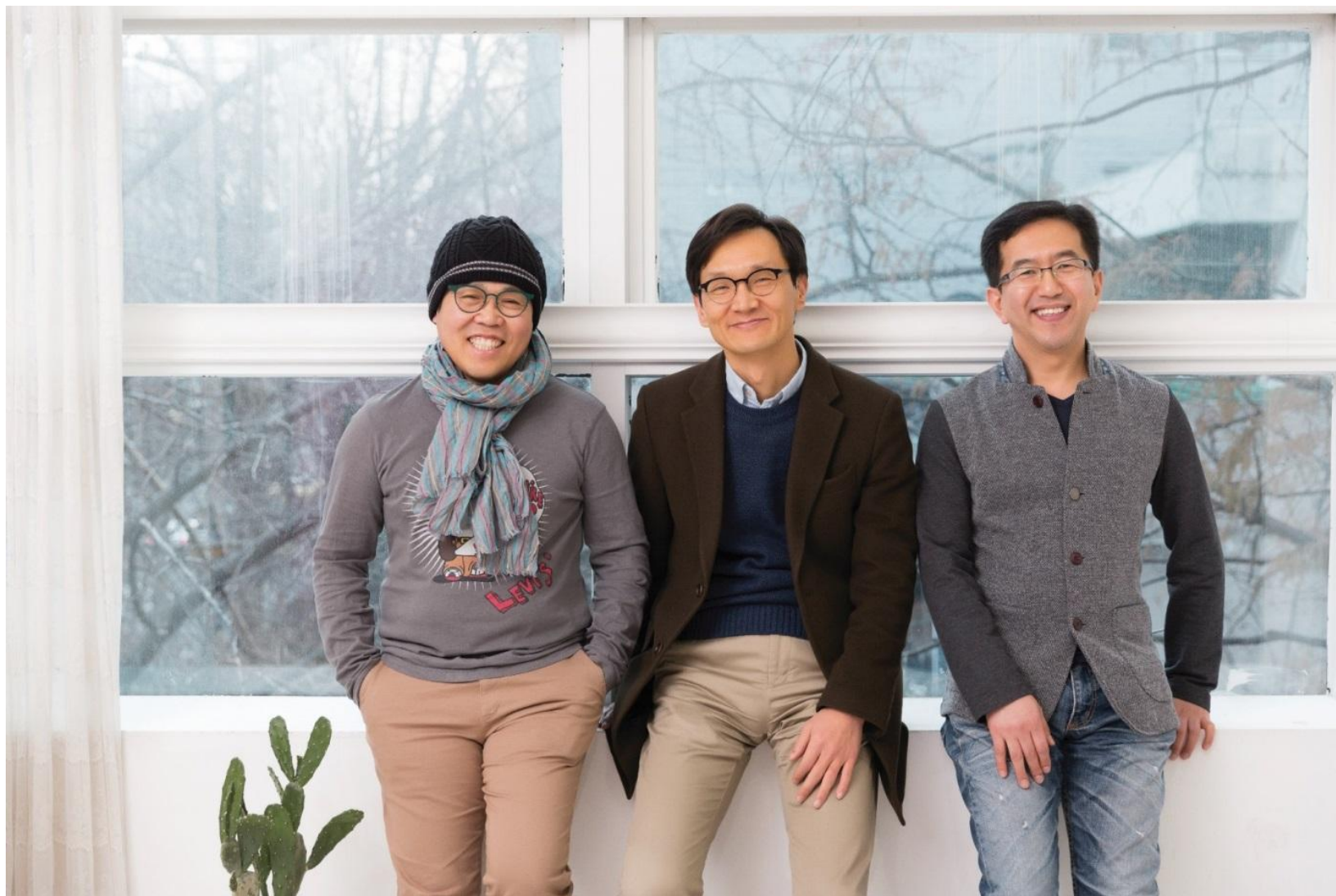
- 2003년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 대책팀** 발족 (노무현 정부)
- 2004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
-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 (이명박 정부)
- 2008년 4월 18일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
-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산하로 격상 (박근혜 정부)
- 2015년 2월 6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발표



5억 or 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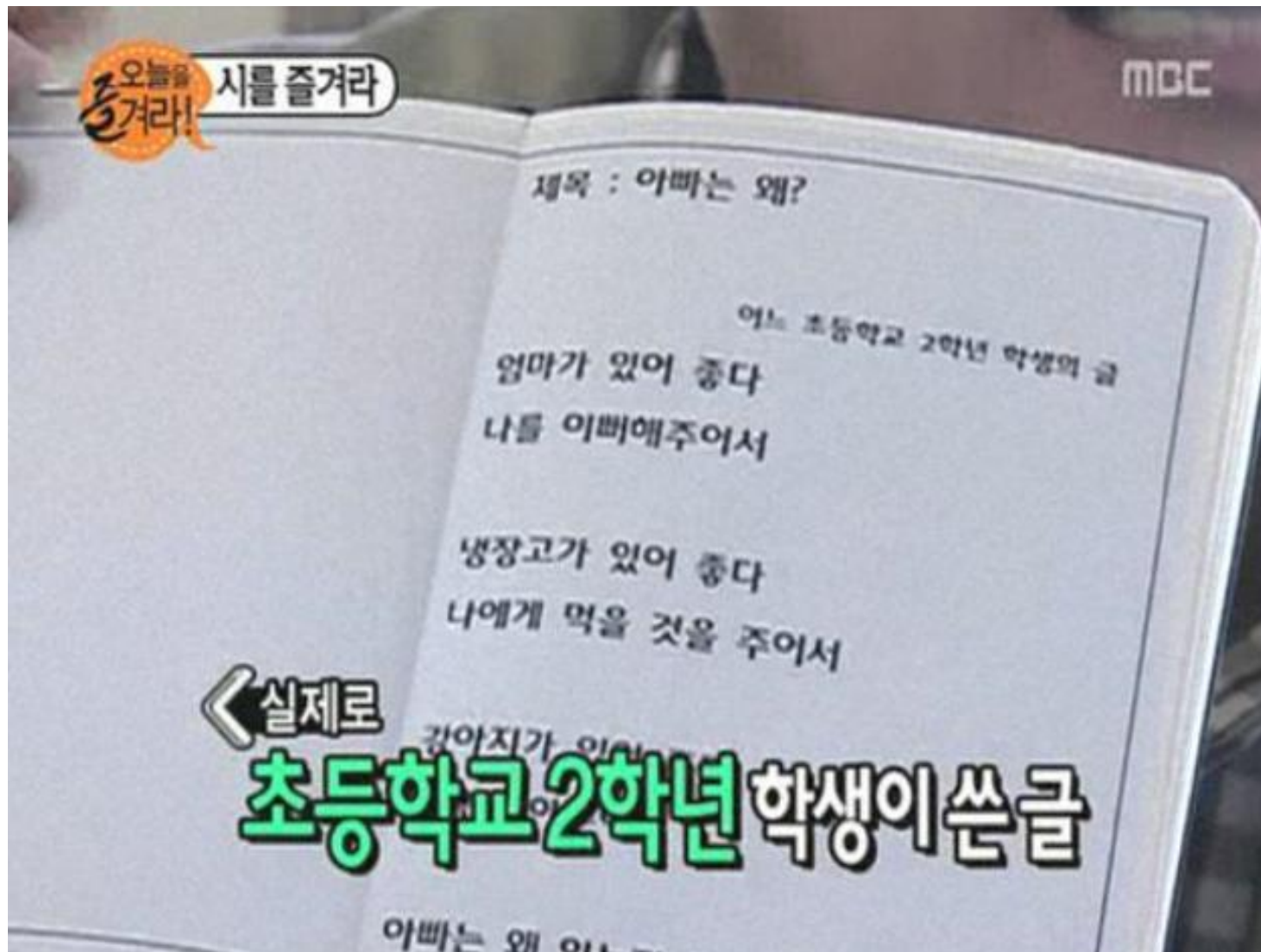
제2의 엄마?





아빠의 무관심 ?

아빠는 왜 있는지?



그 결과... ?

- 미시적  혼란 & 소외
- 거시적  공동체 불안정




The Telegraph

HOME NEWS WORLD SPORT FINANCE COMMENT BLOGS CULTURE TRAVEL
Politics | Obits | Education | Earth | Science | Defence | Health | Scotland | Royal | Celebri

BLOGS HOME » NEWS » POLITICS » CRISTINA ODOE

Cristina Odone

Cristina Odone is a journalist, novelist and broadcaster specialis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families and faith. She is a Research Fellow at the Centre for Policy Studies and is a former editor of the Catholic Herald and deputy editor of the New Statesman. She is married and lives in west London with her husband, two stepsons and a daughter. She has recently launched the website freefaith.com.

 Follow 1,750 followers



London riots: Absent fathers have a lot to answer for

솔루션



모두가 대통령만 탓한다

박정훈 칼럼



논설위원

어디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일까
최씨 농단을 방조하고 침묵한
시스템의 후진성이 더 문제다
일본과 맞먹겠다 큰 소리쳤지만
우리가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
이 처연한 현실 앞에 솔직해지자

역설(逆說)이라고 할까. '최순실 스캔들'이 가져다준 순작용이 있다. 최씨 일당의 분탕질 덕에 나라의 실력을 알게 됐다. 우리는 그래도 선진국 문턱까지 온 줄 알았다. 경제력은 물론 국가 품격과 문화 수준이 개도국은 넘어섰다 믿었다. 그 믿음이 무너졌다.

비선의 사익(私益)을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됐다. 청와대가 기업 돈을 뜯고 특권층의 '백'에 입시 공정성이 무너졌다. 비선의 압박, 정권의 갈취, 특권층 '갑(甲)질'... 이 모든 것이 후진국병(病)이다. 이 참담한 실상 앞에서 계속 선진국 운운한다면 우리가 뻔뻔한 것이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무릎을 친 순간이 있었다. 청년 시위대가 이런 구호를 들고 있었다.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인 줄 알았는데 고조선이었다.' 이게 정답일 것이다. 우리의 국가 운영은 '고(古)조선'으로 회화될 만큼 전근대적이었다.

모두가 대통령만 탓한다. 대통령 잘못으로 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 한다. 검찰에 불려간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이 시켰다 하고 있다. 맞다. 왕정(王政) 시대에 머문 듯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운영 시스템은 더 문제였다. 주변 참모들과 사정 기관, 정치 리더십과 관료 집단이 모두 엉망이었다.

어느 나라나 비선이 출몰할 수는 있다. 우리의 문제는 비정상을 감시할 경보(警報) 시스템이 고장 난 것이었다. 대통령의 궤도 이탈을 잡아줄 견제 시스템도 없었다. 대통령의 일탈(逸脫)이 후진

적인 국가 시스템과 결합한 것이 지금의 사태다.

최씨 일당의 국정 농단은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늦춰 잡아도 2년 전엔 체크될 수 있었다. 2014년 가을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정윤희 문건'에 최순실이 등장한다. 문건엔 '시중에선 최순실이 서열 1순위, 대통령이 3순위라 한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도 문건 내용을 보고받았다. 적어도 그 시절엔 박근혜 대통령도 최씨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진상 파악 대신 문건 유출만 문제 삼았다. 국정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기능 장애를 일으켰다.

대통령은 40년 친분에 눈이 멀었다 치자. 이를 감시해야 할 청와대 참모와 사정 책임자들은 무얼 했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문건 유출이 "쓰레기 같다"며 엉뚱하게 '언론 보복'을 지시했다. 민정수석실과 검찰은 내시(內侍)처럼 대통령 비위만 맞췄다.

때늦은 복기(復讐)지만 최순실 문제가 체크될 경로는 술하게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씨 딸의 승마대회 판정 시비를 감사한 것이 3년 전이다. 감사보고서에서 승마계의 최씨 파벌 문제를 지적해놓고도 대통령이 화내자 덮었다. 그 후 문제부는 최씨 일당의 민원(民願) 해결 부서로 전락했다.

최씨 딸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것 역시 2년 전이다. 대학 측이 "금메달을 뽐으라"며 부정 선발을 지시해도 저항한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 저항은 커녕 수업을 빠져도 학점 주고 과제물까지 대신 써주었다. 이대 교수·교직원 중 최씨 딸 문제를 알 만한 사람이 수십명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부정을 감시할 교육부는 거꾸로 최씨 딸을 VIP로 모신 이대에 특혜를 주었다. 특권층 앞에 공공교육이 무너졌지만 교육의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게 선진국인가.

교육계뿐 아니다. 아담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언론의 감시 기능도 불충분했다. 대통령을 '누님'이라 부르며 친분을 과시하던 친박 실세들은 무얼 하고 있었나. 국가 시스템 전체가 장애를 일으켰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 핑계만 댈 게 아니다.

선진국에도 부정과 비리는 있다. 그러나 구속이 생기면 누군가 나타나 휘슬을 불어대는 것이 선진국이다. 우리는 최씨 일당이 휘젓고 다니는 동안 누구도 경보음을 울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무섭다고 워선의 지시라고 혹은 지금까지 해왔다는 관행을 이유로 부정의 향연에 동조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왔다. 일본과 맞먹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지구상에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외국인들이 놀란다. 얼마나 허망한 과대망상이었는지 알게 됐다.

최순실 사태가 벌여 놓은 이 처연한 현실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 한 사람만 몰아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정 시스템에 참여하는 통치 엘리트들이 후진성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공직자·관료·정치인·교육자·언론인·기업인의 '고조선 의식'을 송두리째 고쳐야 한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공공성(公共性)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멀었다는 사실부터 겸허하게 인정하자. 그래야 나라 꼴이 엉망진창 된 이 난리통 속에서도 다음 갈 길이 보인다.



함께하는
아버지들

아버지들이
달라지자 !



MEN IN FAMILIES

and Family Policy in a Changing World



- ▶ UN보고서(Men in Families, 2011)
- ▶ fatherhood를 조명 !
- ▶ 선진국의 '아버지를 염두에 둔 (father-inclusive) 공공정책'을 분석
- ▶ '자녀교육에 아버지들을 잘 연결시키는 정책적 아이디어'의 중요성 강조



FI joins David Lammy MP to call for joint birth registration

13 June 2012 | [Leave a comment](#)



For Fathers' Day 2012, David Lammy MP, the Fatherhood Institute and other campaigners have joined forces to call on the government to stand up for mums, dads and whole families. Active dads are good for children and good for families - a fact that we recognise every Fathers' Day, but that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law. At least 45,000 children every year do not have their father registered on their birth certificate. This is bad for children. Legislation introduced in 2009 aimed to ensure that more children born to unmarried parents have both parents registered on their birth certificate. The

Government has refused to bring that legislation into force. [Read the full story »](#)



Why 18 weeks is the optimum for mum-only parenting leave

The Government is planning a more flexible system for parenting leave in the UK - but there's a question about how much leave should be retained for mothers-only.



FI welcomes plan to recognise both parents' importance post-separation

The Fatherhood Institute has welcomed the Government's plans to explicitly recognise in law the importance of children having a relationship with both parents after separation.

Maternity



proficiency test

Early years



Schools



Targeted



For employers



For fathers



Get involved



"good" Dads" - we want to fill society with "smiling" Dads.

동영상- 3의 법칙

사단
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야기

인간의 두 얼굴 1

(사)함께하는아버지들 !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

- 사단법인
- 지정기부금단체
- 소셜벤처

Help & Make

행복한 아버지 노릇을 돕고,
더 나은 공동체 만들기



KT&G와 함께하는

제4회 우리들의



정한 사진

0만원

100만원

상금 50만원

주최 :



아버지들

후원 : KT&G



여성가족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동 상

10작품

상장 및 상금 10만원



원본 저장하기

이미지 슬라이드

과정(시간)	개 요	구 성
행복하게 아빠하기 (Happy Fathering) 2~3시간	[특강] 행복한 아빠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빠 노릇의 기본기,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는(예비)아빠를 위한 핵심 강의!	·부성과 모성의 차이 ·좋은 아빠& 웃는 아빠 ·아버지 프레임 (아버지 3.0)
아버지는 신통한 키 (新通Key)! 2시간/회 X 4회	[아버지교육 정규 프로그램] 아빠의 행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 능력의 체계적인 업그레이드	·신(新)나는 아빠되기 -행복한 아빠, 웃는아빠 ·통(通)하는 아빠되기 -가족과 소통하는 아빠 ·키(Key)우는 아빠 -행복한 성공을 돕는 아빠
곶대의 소통비결 2시간/회 X 4회	[소통역량 강화 과정] 회사인간으로 살다가 가정의 왕따가 된 중년 아버지를 위한 소통법, 은퇴를 했거나 앞둔 아버지들의 가족내 제자리 찾기	·가족관 관계성 진단 ·공감능력 키우기 ·대화의 기술
GRIT, 행복한 성공의 비밀 2시간/회 X 4회	[비인지능력 강화 프로그램] 행복도 성공도 약속해줄 수 없는 학원 뽕뽕이의 대안! 자녀의 행복한 성공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비인지능력의 이해와 훈련법	·왜 비인지능력인가? ·자기동기력 -스스로 공부하는 동기 3.0 ·자기조절력 -역경을 이기는 마음의 힘 ·대인관계력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Fathering Kit



자발적이고

신나는

“아빠노릇”

을

돕는 용품

(사외적기업 상품으로 준비중)

감사합니다 !

www.fathers.or.kr

02) 415-7955 / fathersorkr@naver.com



함께하는
아버지들